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in the Middle and the Early Old Aged :
An Effect of Financial Resources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고선강**

Sungshin Women's Univ. Dept. of Social Welfare
Associate Professor: Koh, Sun-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mong three generations,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viders' financial resources o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he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data from KReIS on the financial transfers provided by the aged 40-69 years to their parents and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around one-third of the respondents reported providing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to their parents, and that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provided financial transfers to their children. In terms of the other direction of financial transfers, a small percentage of the respondents received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parents otherwis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reported having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Considering age differences among the respondents, we find that respondents in the age 60s are more likely to receive financial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than those in the age 50s or 40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providing financial transfers are different from who received transfers.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고선강(skoh@sungshin.ac.kr)

Key Words :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 중노년기(the middle and old aged), 경제자원(financial resource),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순자산(net worth)

I. 서론

우리나라의 중노년기 가정은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약화로 인하여 효에 기초한 부모부양 의식이 약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의 많은 부분은 중노년기 자녀에게 있다. 부모 부양여부에 대한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를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분석한 강성호(2008)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스스로 부양한다는 비율이 1994년 37.6%에서 2006년에는 46.3%로 증가하였으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비율도 2006년에 53.3%로 여전히 반이상의 응답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중노년기 가정은 자녀 지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시기를 지연시키고(김두섭, 2007; 여성연·고선강·조희금, 2010) 이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확장시켜 중노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는 사교육비, 대학교 재학기간에는 대학등록금, 졸업 후에는 취업준비와 결혼을 위한 비용까지 중노년기 부모의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가 독립하여 가정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부모세대, 자녀세대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중노년기 세대를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한다(Grundy & Henretta, 2006). 이들은 노인이 된 부모세대를 부양해야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지원해야하는 의무를 갖는다.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수직화(verticalization)는 3세대는 물론, 4세대 심지어는 5세대가 한 세상에서 공존해 살게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Bengtson, Rosenthal, & Burton, 1990). 이러한 현상은 3세대 가족관계에서 중간세대의 부담을 의미하는 샌드위치 세대라는 개념(Grundy & Henretta, 2006)을 넘어서는 4세대, 5세대의 더욱 복잡한 구조의 세대관계가 확대가족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대 간의 관계는 개별 가정이 자원을 서로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자원이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거나,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원이전 행위는 자원을 보내고, 받는 쌍방 간의 관계 맺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세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자원이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들(문숙재·김지연, 2006; 김지경·송은경, 2004; 고선강, 2008; 황남희·정주연, 2009; 김지경·송현주, 2008; 김순미·박미려, 2008)은 주로 노부모 부양의 측면에서 2세대(부모세대 자녀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연구하였다.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의 사적이전 소득에 대한 연구, 이들이 성인 자녀들과 주고받는 경제적 자원이전이 주된 관심이었다.

샌드위치 세대의 이중 부담을 설명할 수 있는 3세대 간의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년기와 노년기, 특히 초노년기(early old age)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은 생존해 계시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할 성인 자녀가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앞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인구구조의 변화, 자녀의 독립시기의 지연 등

으로 인해 더 많은 중년기, 초노년기의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지원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Grundy & Henretta, 2006).

따라서 기초적으로 중년기, 초노년기 가정이 윗세대와 동시에 아랫세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양쪽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한다면 이들의 이중부담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중노년기 중에서도 중년기와 초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과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자원이전의 주체(제공자, 수혜자)의 연령대별 경제적 자원이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김지연, 2006; 김지경·송은경, 2004; 고선강, 2008; 황남희·정주연, 2009; 김지경·송현주, 2008; 김순미·박미려, 2008)에서는 자원이전의 주체가 '성인자녀와 그들의 부모', 또는 '노부모와 그들의 자녀'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안에서의 다양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특히 성인자녀, 노부모로 규정된 집단의 연령의 분포가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비교 통합하기 어려운 점이 발견된다. 본 연구는 자원이전 주체를 연령대별로 집단화하여 동질화된 연령집단 안에서의 자원이전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자원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원제공자, 자원수혜자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자원이전 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그러나 경제적 자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

가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자원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 자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이 있다.

Becker(1991)는 이타주의론을 기초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설명하였다. Becker는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해 인적, 물질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투자수익이 더 높아 효율적이어서 이타적이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배희선, 최현자, 2002). 첫째, 자녀는 이기적이고, 부모는 이타적이다. 그 이유는 자녀는 자신의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반면 부모는 자신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비는 물론 자녀의 효용을 통해서 만족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부모는 이타적이다. 둘째, 모든 조건이 같다면 이타적 부모는 경제적 자원의 수혜자인 자녀의 소득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 셋째, 매우 이기적인 자녀라도 이타적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자신의 가족의 소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녀의 악의적인 행동에 의해 발생된 자신의 소득 증가분보다 그 행동으로 발생된 가족 소득의 감소가 크면 이기적인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복지를 침해한다 해도 이기적인 자녀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 증가를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타적인 가족내에 있는 이기주의자는 비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Becker는 부모를 이타적 가장, 자녀들을 이기적 가족구성원으로 가정하여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설명하였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서만 복지증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즉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자녀에게 이타적 부모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통해서 그 자녀의 소비를 촉진시켜주면, 그 자녀의 복지가 증진되고 따라서 부모의 복지감도 증진된다는 것이다(고선강, 2005).

이러한 이타주의론과는 달리 교환이론(Exchange Theory)에서는 기부자가 금융자산의 이전을 이용해서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한다고 본다. 교환이론에서 상호 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돌아올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고선강 2005에서 재인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도 그것이 주는 보상과 비용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기부자는 수혜자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하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게 된다고 본다.

특히 Bernheim 등(1985)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따른 전략적 유산상속모델을 제시하였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확률이 높다. 자녀들은 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부모는 자녀 중에 자신에게 더 잘하는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녀는 자신들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 자원의 수혜자와 제공자의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다. 이타주의론은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부모(제공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수혜자)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환이론은 자원을 제공받는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더 높아진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교환이론과 전략적 유산상속 모델의 맥락에서 자원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경제적 수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운택한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미래에 자녀로부터 돌아오게 될 보상에 대한 기대가 포함된 행동일 수 있다.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은 공통적으로 자원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수준으로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노년기 가정이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제공과 수혜에 중년기 가정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라 본다. 특히 중노년기 가정이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때,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자원제공을 받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면 이타주의적 동기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제공을 받는 확률이 높아진다면 교환이론의 동기를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2. 경제적 자원이전 관련 변인

1) 경제적 자원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이 자원이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는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에 따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반면 자원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McGarry와 Schoeni(1995)는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유한 자녀들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수혜 받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때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는 경제적으로 운택한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손병돈(1997)의 가족 간 소득 이전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자원의 제공자인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은 부모와 자녀 간의 자원의 상호 교류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경제적 자원이 많은 자녀인 경우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와 상호 교류를 하거나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의 순자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MacDonald & Koh(2006)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높은 수준인 경우 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거나,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중고령자 조사자료를 분석한 김순미와 박미려(2008)의 연구에

서 중·고령자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집을 소유한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와 비교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치매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원이전을 연구한 고선강(2005)은 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 자원의 제공자인 자녀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자산상태 중간인 경우와 비교하여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득, 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부모 자녀간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 자원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을 제공할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바이다. 그러나 자원 제공자의 경제적 자원 중 어떤 종류의 자원이 이들의 자원이전 행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원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중 소득의 종류에 관심을 두고 분석을 하고자 한다.

2) 연령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연령은 경제적 자원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진재문(1999)의 만 55세 이상의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대상자의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사적이전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동거 부모와 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교류를 연구한 김지경과 송은경(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답한 가구주의 연령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가구주 집단보다 평균연령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는 40대 미만의 성인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숙재와 김지연(2006)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소득 계층별 경제적 자원 교류 결정 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저소득층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 자녀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에서 중요한 영향 변수로 알려진 연령을 세분화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연령집단 안에서의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자원제공자와 수혜자의 특성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자원제공자와 수혜자의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자녀수 등을 주요한 영향 변인이라 하였다. 김순미·박미려(2008)는 남성이 여성과 비교하여 가족, 친족 간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 소득이전에 관해 연구한 김지경·송현주(2008)는 부모와의 사적 소득 이전은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아들인 경우 81%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지만, 딸인 경우는 42%만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원제공자의 혼인상태도 경제적 자원이전에 유의한 영향변수로 알려져 있다. 고선강(2005)이 미국의 위스콘신종합연구조사를 사용하여 50대 성인자녀와 부모간의 자원이전 행동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자녀의 혼인 상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데에 유의한 결정 요인이었다. 50대의 성인 자녀가 미혼이거나, 별거, 이혼, 사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혼인상태에 있는 자녀보다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의 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이전에서 자원이전 주체의 교육수준은 선행연구들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2006년도 고령화연구패널을 분석한 김진(2008)은 자녀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을 연구하였다. 성인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경과 송은경(2004), 문숙재·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AHEAD(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를 분석한 McGarry 와 Schoeni(1997)의 연구는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는데, 강성진·전형준(2005)은 한국가구경제패널조사(KHPS)와 노동패널조사(KLIPS)를 분석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서로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자녀수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와 수혜 받는 경우 반대되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박미려(2007)의 연구에서 자녀수가 많을 경우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낮았으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선강(2005)의 연구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때에 성인 자녀의 자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로 손자녀를 고려하기도 한다. 김지경과 송현주(2008)에서 손자녀의 유무가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이전 액수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 1)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 자원이전의 양상은 어떠한가?
- 2)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 자원이전에 대한 경제자원 변수들의 효과는 어떠한가?
- 3)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 자원이전에 대한 경제자원 변수들의 효과가 연령대 별 차이가 있는가?

2. 연구표본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2차년도 자료(2007년도)를 활용하여 연구표본을 추출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은 전국의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로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심과 시설단위의 조사구를 제외한 24,995개 일반조사구(1,420,999 가구)에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 가구가 조사대상가구로 추출되었고, 만 50세 이상 가구원과 동거하는 배우자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추출되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2차년도 조사대상자 중 자녀가 있고, 부모 중 한분이상 생존해 있는 개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수준이 다른 가구단위의 정보(예, 소득, 자산, 자녀수 등)와 개인단위의 정보(성별, 연령

등)을 함께 분석하는 부분이 있어 한 가구에 2인이 연구표본에 들어갈 경우 각 사례의 독립성이 저하될 수 있다(김재철, 2009). 따라서 한 가구에 2인이 추출된 경우는 그 중 가구주만 연구표본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40대~60대로 제한하였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경제적 자원이전이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1년 동안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에게 정기적인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하신 적이 있는가'와 '작년 한 해 동안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는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목적으로 가족, 기타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종교단체로부터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가'로 측정되었다. 이 두 문항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자녀로부터'에 답한 경우를 추출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변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에서 독립 변수들은 경제자원을 측정하는 변수들이다. 이 중에서도 자산보다는 소득을 종류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이 1년이라는 단기간에 발생한 일상적인 경제적 자원이전이므로 자산과 같은 저량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자원보다 소득과 같은 유량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자원에 더 민감하리라 생각하여 소득을 세분화하여 측정하였다.

가계소득은 상, 중, 하로 나누었으며, 연구표본의 소득을 5분위로 나누어 소득5분위를 '소득 상', 2,3,4분위를 '소득 중', 1분위를 '소득 하'로 하였다. 순자산도 5분위로 나누어 5분위는 '자산 상', 2,3,4분위는 '자산 중', 1분위를 '자산 하'로 구분하였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세분화된 소득변수들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급여, 이전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지난 1년 동안 각각의 소득의 유무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은 예금적금의 이자, 주식 등의 배당금, 주식매매차익,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며, 부동산소득은 각종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권리금 차익을 포함한다. 사회급여는 사회보장급여로서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등의 수당을 포함한다. 이전소득은 가족, 친인척, 이혼한 배우자, 사회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사적이전 소득을 의미하며, 이전소득은 조사대상자가 경제적 자원 이전 수혜에 대한 분석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독립변수들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과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녀수, 손자녀 유무, 부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친부모 생존 여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무학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상의 세집단으로 나누었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표본 1178명은 적어도 한분의 부모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표본의 일반적 특성

(n=1178)				
구분	변수군	변수 명	변수 값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종속 변수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유=1	336(28.5%)
			무=0	842(71.5%)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유=1	657(55.8%)
			무=0	665(44.2%)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유=1	36(3.1%)
			무=0	1142(96.9%)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유=1	665(56.5%)
			무=0	513(43.5%)
독립변수	경제자원	가계 소득	상= 상위	196(16.6%)
			중= 중간	637(54.1%)
		순자산 ²⁾	하= 하위	218(18.5%)
			무응답	127(10.8%)
			상= 상위	225(19.1%)
			중= 중간	670(56.9%)
			하= 하위	228(19.3%)
			무응답	55(4.7%)

2) 순자산=기타소유주택자산가치+사업체자산가치+기타부동산자산가치+금융자산총액+금융기관 예·적금시가총액+개인연금시가총액+저축성보험불입액시가총액+직립연금납부금시가총액+주식투자자금시가총액+유가증권시가총액+빌려준돈/갚은시가총액+기타금융자산시가총액+기타자산자산가치총액-총부채잔액

〈표 1〉 계속

구분	변수군	변수 명	변수 값	빈도(백분율) 평균(표준편차)
		근로소득	유=1, 무=0	704(59.8%) 474(40.2%)
		금융소득	유=1, 무=0	356(30.2%) 822(69.8%)
독립변수	경제자원	부동산소득	유=1, 무=0	220(18.7%) 958(81.3%)
		사회급여	유=1, 무=0	279(23.7%) 899(76.3%)
		이전소득	유=1, 무=0	716(60.8%) 462(39.2%)
통제변수	조사대상자 특성	성별(여성)	남=1, 여=0	563(47.8%) 615(52.2%)
		연령	만연령	57.41세 (5.37세)
			40대	72(6.1%)
			50대 60대	687(58.3%) 419(35.6%)
		배우자 유무	유=1 무=0	1014(86.1%) 164(13.9%)
	교육 수준 (중등/고등)	1=무학/초등 2=중등/고등 3=대학/대학원	397(33.7%) 636(54.0%) 145(12.3%)	
	자녀 특성	자녀수	생존 자녀 수	2.65명 (1.09명)
		손자녀 유무	유=1 무=0	590(50.1%) 588(49.9%)
	부모 특성	양친생존	양친생존=1 한분생존=0	197(15.2%) 999(84.8%)
		부모경제수준	1=매우 좋지 않다 2=좋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좋은 편이다 5=매우 좋다	2.71점 (0.86점)

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의 사람들이다. 연구표본의 47.8%는 남성이고, 52.2%는 여성이다. 평균연령은 57.4세이다. 40대가 72명으로 전체의 6.1%, 50대가 636명으로 58.3%, 60대가 419명으로 35.6%를 차지하였다.

전체의 86.1%가 배우자가 있다고 하였고, 약 13.9%는 배우자가 없다고 하였다. 교육수준은 전체의 33.7%는 무학이거나 초등학교의 학력을 가졌고, 54%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며, 12.3%는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2.65명이고 손자녀가 있는 경우도 약 50%가 되었다. 이들의 부모는 양친이 생존해 계신 경우가 15.2%였고, 부모의 경제적 상태는 평균 2.71로 평가하여, '보통이다'와 '좋지 않은 편이다'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3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교차분석표를 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경제적 자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

중노년기 가정을 중심으로 그들의 부모세대

와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제공과 수혜 양상을 연령대 별로 살펴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자원이전 양상은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이전 보다는 자녀와의 자원이전이 더 빈번하였다. 부모에게 제공한 비율이 28.5%, 부모에게 받은 비율이 3.1%, 자녀에게 제공한 비율이 55.8%, 자녀로부터 받은 비율이 56.5%였다. 중노년기 가정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빈도는 40대의 31.9%, 50대의 31.6%, 60대의 22.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 모두 부모 중 적어도 한분 이상 생존해 계시는데, 조사대상자가 60대인 경우 40대, 50대와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비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40대와 50대는 각각 61.1%, 59.2%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반면, 60대는

<표 2> 조사대상자 연령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양상

(n=1,178)

종속 변수		연령 빈도(백분율%)				χ^2
		40대	50대	60대	전체	
부모에게	제공 안함	49 (68.1)	470 (68.4)	323 (77.1)	842 (71.5)	10.047***
	제공 함	23 (31.9)	217 (31.6)	96 (22.9)	336 (28.5)	
자녀에게	제공 안함	28 (38.9)	280 (40.8)	213 (50.8)	521 44.2	11.603***
	제공 함	44 (61.1)	407 (59.2)	206 (49.2)	657 (55.8)	
부모로부터	받지 않음	67 (93.1)	663 (96.5)	412 (98.3)	1142 (96.9)	6.833* ¹⁾
	받음	5 (6.9)	24 (3.5)	7 (1.7)	36 (3.1)	
자녀로부터	받지 않음	51 (70.8)	359 (52.3)	103 (24.6)	513 (43.5)	104.302***
	받음	21 (29.2)	328 (47.7)	316 (75.4)	665 (56.5)	

* p<.05, *** p<.001.

1) 셀 중에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있음.

〈표 3〉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

변수		부모에게(n=931)			자녀에게(n=1003)			자녀로부터(n=1003)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B	S.E	odds ratio
독립 변수	가계소득 하	-.519*	.267	.595	.114	.193	1.121	-.342	.234	.711
	가계소득 상	.496**	.195	1.642	-.253	.187	.776	.244	.204	1.276
	순자산 하	-.313	.217	.731	-.223	.173	.800	.002	.197	1.002
	순자산 상	.003	.218	1.003	.410**	.208	1.507	-.623***	.224	.536
	근로소득 유무	.418**	.197	1.520	.289*	.164	1.336	-.210	.184	.811
	금융소득 유무	.392**	.176	1.480	.620***	.165	1.860	.402**	.182	1.494
	부동산소득유무	.247	.202	1.280	.060	.183	1.062	-.266	.206	.767
	사회급여 유무	.063	.236	1.065	.528***	.202	1.695	-.077	.230	.926
	이전소득 유무	.163	.171	1.178	.030	.156	1.031			
통제 변수	성별: 남성	.563**	.201	1.756	.216	.174	1.241	-.759***	.194	.468
	연령	-.032	.021	.968	-.097***	.020	.908	.113***	.021	1.120
	교육수준: 중/고등학교	.413*	.197	1.512	.073	.166	1.076	-.149	.187	.862
	교육수준: 대학/대학원	.762**	.289	2.142	.194	.268	1.213	-.749*	.298	.473
	배우자 유무	.082	.290	1.086	.667***	.225	1.949	-.009	.264	.991
	양친생존	-.169	.207	.845						
	부모경제적수준	-.182*	.094	.833						
	자녀수				.433***	.078	1.541	.473***	.096	1.605
	손자녀 유무				-.210	.170	.810	1.007***	.177	2.736
상수	.305	1.22		3.588	1.07		-7.089	1.212		
-2 log likelihood		1008.45			1262.020			1052.585		
Model Chi-square		103.69***			104.384***			323.716***		
Nagelkerke's R ²		.151			.133			.370		

* p<.1, ** p<.05, *** p<.01

49.2%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60대의 경우 윗세대, 아랫세대 모두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가정이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도 연령대 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비율은 빈도 자체가 매우 적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3.1%인 36명만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았다고 답했는데, 40대는 6.9%, 50대는 3.5%, 60대는 1.7%로 나타났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비율은 40대가 29.2%, 50대가 47.7%, 60대가 75.4%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부모에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았던 반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종합적으로 연령대 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을 비교해 보면 40대는 부모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기 보다는 제공하는 경향이 더 높고, 50대는 부모와 자녀에게 빈번하게 제공하기도 하고, 동시에 자녀로부터 받는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6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가 빈번한 연령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령대에 따른 자원이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연령대 별로 경제적 자원이전을 결정하는 요인들도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경제자원의 효과

<표 3>은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인 경제자원과 통제변수들을 넣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참고로 가계소득, 순자산, 성별, 학력은 가변수 처리하여 준거집단을 가계소득 중, 순자산 중, 여성, 무학/초등학교로 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3개의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모형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이 있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매우 낮고 분석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부모에게' 모형에는 부모특성을 나타내는 양친생존, 부모경제적수준을 투입하였고, '자녀에게' 모형에는 자녀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녀수, 손자녀 유무를 투입하였다. '자녀로부터' 모형에는 이전소득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들 중 92.9%가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이전소득 유무'는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각 모형의 설명력은 Nagelkerke's R²을 비교해 보면 '부모에게(경제적 자원이전)

모형이 .151, '자녀에게(경제적 자원이전)' 모형이 .133, '자녀로부터(경제적 자원이전)' 모형이 .370으로 나타나 '자녀로부터'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모형에서 경제적 자원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가계소득 하, 가계소득 상, 근로소득 유무, 금융소득 유무, 성별, 학력(중/고등학교, 대학/대학원), 부모의 경제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원의 수준을 나타내는 가계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중간 집단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소득수준 하'에 속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경향성이 낮았다. 반면 '소득수준 상'에 속한 사람들은 소득수준 중간집단과 비교하여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순자산의 수준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세부적인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인 경우, 학력이 높은 경우, 부모의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자원이전의 경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에게' 모형에서는 가계소득 수준 보다는 순자산 수준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순자산이 상위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간집단과 비교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향성이 높은 반면, 가계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와 더불어 사회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들 중에는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녀로부터’ 모형에서도 가계소득 보다는 순자산 수준이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은 순자산이 상위20%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간집단과 비교하여 제공받을 확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의 종류에서는 금융소득만이 자녀로부터 자원이전을 제공받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융소득(B=.402)이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사회급여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과 부(-)의 관계를 타나낸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통제변수들 중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인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을 확률이 높았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대학/대학원 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손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 중 자녀와의 자원이전에서는 순자산이, 부모와의 자원이전에는 가계소득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는 근로소득의 유무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때는 사회급여의 유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중노년기 가정이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주는 경제자원 변인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3.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연령대별 비교

<표4>는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경제자원 수준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40대, 50대, 60대로 연령대를 나누어서 경제자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40대의 경우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외하고 50대와 60대의 분석결과를 비교 제시하였다.

먼저 50대와 60대의 ‘부모에게’ 모형을 비교해 보면, 50대의 경우 경제자원 변수들 중 가계소득과 금융소득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60대는 순자산과 근로소득 유무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50대는 가계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사람들은 중간집단과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 금융소득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제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60대의 경우 가계소득 보다는 순자산 중간집단과 비교하여 순자산 수준이 ‘하’인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할 확률이 높았다. 50대와 60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소득수준 하, 순자산 하) 제공하기 어렵고, 특정 형태의 소득(금융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는 경향성이 높아진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제공자의 자산상태가 낮은 경우 중간층과 비교하여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낮아진다는 고선강(200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50대와 60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결정할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적 자원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50대의 경우 가계소득이 낮은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제공이 어렵고, 60대는 순자산 수준이 낮은 경우 부모에게 자원 제공이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연령을 집단별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을 한 결과(<표3> 참조)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이다. 더불어 50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결정하는 것에는 금융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60대는 근로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발견하였다.

‘부모에게’ 모형의 통제변수들 중 50대의 모형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60대 모형에서는 교육수준(대학/대학원)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되는 경우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60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여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에게’ 분석모형에서는 경제자원 변수들 중 50대는 가계소득, 순자산, 금융소득 유무, 사회급여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60대는 근로소득 유무, 금융소득 유무, 이전소득 유무가 유의한 변인이었다. 50대는 가계소득 중간집단과 비교하여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순자산 하위 20%에 속하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낮아진다. 자산의 수준이 낮은 경우 경제적 자원을 제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점은 선행연구(고선강, 2005)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적 자원제공의 확률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자원 제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

(McGarry & Schoeni, 1995; 손병돈, 1997; 김지경·송은경, 2004; 문숙재·김지연, 2006; MacDonald & Koh, 2006; 김순미·박미려, 2008)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노년기 가정의 가계소득이 높다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한 확률이 높아 고소득층에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이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60대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자원 변수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회급여, 이전소득의 유무인데, 이 중 50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근로소득, 이전소득의 유무이다. 근로소득은 60대가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B=1.096, odds ratio=2.992)인 동시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중요한 변인(B=.677, odds ratio=1.969)임을 알 수 있다.

‘자녀에게’ 모형의 통제변수들 중 50대, 60대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연령과 자녀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을 할 확률이 낮았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인 사람과 비교하여 대학이상인 사람이 50대는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았으나, 60대는 자원이전의 확률이 낮았다. 50대는 남성인 경우, 6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로부터’ 분석모형에서는 50대와 60대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60대의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자원 변수는 부동산소득 유무였고, 50대는 가계소득 하, B=-.551, odds ratio=.576), 순자산 상(B=-.766, odds ratio=.465), 사회급여의 유무였다. 60대는 다른 변수들을 통한 사람과 비교하여 대학이상인 사람이 50대는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았으나, 60대는 자원이전

(표 4) 중노년기 가정의 자원이전에 대한 경제자원의 영향력: 연령대별 비교

변수	부모에게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50대(n=544)		60대(n=331)		50대(n=588)		60대(n=353)		50대(n=588)		60대(n=353)		50대(n=588)		60대(n=353)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B	odds ratio		
독립변수	가계소득 하	-.975***	.377	-.693	.500	.026	1.027	.004	1.004	-.551**	.576	.354	1.425					
	가계소득 상	.395	1.484	.415	1.514	-.530**	.589	-.302	.739	.175	1.192	.061	1.063					
	순자산 하	-.193	.825	-.758**	.469	-.514**	.598	.279	1.322	-.126	.881	.206	1.229					
	순자산 상	-.032	.969	-.392	.676	.270	1.310	.454	1.575	-.766***	.465	-.414	.661					
	근로소득 유무	.030	1.031	1.096***	2.992	-.009	.991	.677**	1.969	-.093	.911	-.381	.683					
	금융소득 유무	.556**	1.744	.502	1.652	.492**	1.635	.858***	2.359	.271	1.311	.410	1.507					
	부동산소득유무	.206	1.229	.240	1.272	.256	1.292	.037	1.038	-.130	.878	-.576*	.562					
	사회급여 유무	-.717	.488	.471	1.602	.774*	2.167	.912	1.861	-.830*	.436	.509	1.663					
	이전소득 유무	.070	1.073	.447	1.563	-.092	.912	.793***	2.210									
		.712***	2.037	.112	1.118	.470**	1.600	.766	1.038	-.130	.878	-.576*	.562					
통제변수	성별: 남성																	
	연령	-.034	.966	-.020	.981	-.185***	.831	-.117**	.889	.169***	1.184	-.029	.972					
	교육수준:중/고등학교	.473*	1.605	.455	1.576	.232	1.261	-.069	.933	-.354	.702	.458	1.581					
	교육수준:대학이상	.859**	2.362	.879*	2.409	1.156***	3.177	-.722*	.486	-.1247***	.287	-.111	.895					
	배우자 유무	-.565	.568	.813	2.255	.551	1.734	1.150***	3.158	-.046	.955	-.183	.833					
	양친생존	-.060	.942	-.820	.440													
	부모경제적수준	-.220*	.802	-.148	.862	.419***	1.520	.375***	1.454	.419***	1.521	.570***	1.767					
	자녀수					-.084	.920	-.140	.869	1.103***	3.014	.785**	2.192					
	손자녀 유무																	
		1.345	3.838	-.1231	.292	8.639	4.175				-.9528	.790	2.203					
-2 log likelihood	616.90		301.19		1262.02		430.18		622.18		336.98							
Model Chi-square	69.461***		50.576***		81.547***		58.696***		190.50***		52.72***							
Nagelkerke's R2	.167		.216		.176		.204		.370		.208							

* p<.1, ** p<.05, *** p<.01

인 사람과 비교하여 대학이상인 사람이 50대는 자원이전의 확률이 높았으나, 60대는 자원이전의 확률이 낮았다. 50대는 남성인 경우, 60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로부터’ 분석모형에서는 50대와 60대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60대의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자원 변수는 부동산소득 유무였고, 50대는 가계소득 하, $B=-.551$, $odds\ ratio=.576$), 순자산 상($B=-.766$, $odds\ ratio=.465$), 사회급여의 유무였다. 60대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McGarry & Schoeni, 1995)에서 자원이전의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수혜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50대의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하위 20%의 가계소득을 가진 50대의 경우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50대의 경우 사회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국민연금, 특수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므로 사회급여의 내용이 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등에 한정될 것으로 사료되어 50대의 사회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자녀가 아닌 다른 경로의 소득인 사회급여가 있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성이 낮아진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이전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강성진·전형

준(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자녀로부터’ 모형에서는 통제변수들 중 자녀수, 손자녀 유무가 50대 60대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였다. 50대의 경우는 여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교 이상의 학력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과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경제자원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차 국민연금패널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대상자 중 한분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계시고, 자녀가 있는 40-60대에 한정하여 연구표본을 추출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노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40대 50대는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60대는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 모두 윗세대와 아랫세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 중노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부모세대, 자녀세대에 대한 차별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60대의 경우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고,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40-50대와 비교하여 윗세대, 아랫세대에 대한 부양부담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샌드위치 세대의 이중부양 부담은 60대보다는 40-50대에 더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서는 중노년기 가정의 가계소득이, 자녀에 대한 이 전에서는 순자산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노년기 가정이 부모 에게는 소득과 같이 유량의 성격을 갖는 일상 적이고 정기적인 경제적 자원이전을, 자녀에게 는 목돈, 금융자산의 이전 등과 같은 일회적이 고 비정기적인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 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원 제공자의 경제 수 준 보다는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을 중요하게 다루었으나, 본 연구 결과 부모에 대한 이전과 자녀에 대한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자원의 종류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자원이전의 동기를 밝히고자하는 연구 에서 자원제공자의 경제 수준을 다양한 변수로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자 원이전의 제공자’ ‘자원이전의 수혜자’로만 구 분했던 것과는 달리 누구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자원이 다름 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연구모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50대의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에는 금 융소득이 60대의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에는 근 로소득이 주요한 영향변인이었다. 50대는 금융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향성이 높은 반면 60대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자원이전의 경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경 험한 60대에게 근로소득 있다는 것은 정기적이 고 일상적인 현금의 흐름을 만들어주어 부모세 대와 자녀세대에게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현 금이나 현물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는 50대에게 금융소득 있 다는 것은 근로소득 이외의 여유자금을 유통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이용해서 부모와 자 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 을 50대와 60대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50대 와 60대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 변수들은 물론 통제변수들로 다르게 나타났는 데, 50대가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성별은 유의 미하고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 반면, 60대에서 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중년기, 노년기를 하나 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서 세대 간 자원이 전을 연구해온 것과는 달리 중년기, 노년기 안 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한 세대 간 자원이전 연 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사회급여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대 한 효과가 50대, 60대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하는 경우, 50대가 자녀로부터 자원이 전을 받는 경우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은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사적이전 과 공적이전의 관계 연구로 확장될 수 있으며, 세대 간 자원이전 연구가 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성진, 전형준(2005).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공공 경제 10(1), 23-46.
- 2) 강성호(2008). 부양의식변화에 따른 공적이 전소득 비중의 변화 분석. 보건복지포럼 10, 65-76.
- 3)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지 23(1), 187-195.
- 4)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

- 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5) 김두섭(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 6) 김순미, 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7) 김재철(2009). HLM 통계분석 워크숍. 한국가정관리학회 워크숍 자료집.
 - 8) 김지경, 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9) 김지경, 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10)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 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김진(2008). 한국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문숙재, 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요인 분석: 성인자녀가구와 부모가구의 자원교류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29-336.
 - 13) 박미려(2007). 은퇴노인의 경제적 자원 수혜여부 및 수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4) 배희선, 최현자(2002).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분배기준. 대한가정학회지 40(6), 99-115.
 - 15) 손병돈(1997). 가족 간 소득이전행위에 관한 연구. 상황과 복지 1997(2), 261-267.
 - 16) 어성연, 고선강, 조희금(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17) 진재문(1999). 사회보장 이전과 사적 이전의 관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3, 167-199.
 - 18) 황남희, 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2009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1-22.
 - 19) Becker,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0) Bengtson, V. L. & E. Roberts(1991).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21) Bengtson, V., Rosenthal, C., & burton, L.,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Binstock, R. H., &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ition, Academics: San Diego.
 - 22) Bernheim, B. D. et al.(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23) Grundy. E. & Henretta. J. C.(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 26, 707-722.
 - 24) Koh, S. & MacDonald, M.(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25) MacDonald, M. & Koh, S.(2003).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simple altruism.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1), 73-98.
 - 26) McGarry, K. & Schoeni, R. F.(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27) McGarry, K. & Schoeni, R. F.(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28)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P. G. Boss et al.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385-411). NY: Plenum Press.

- 투 고 일 : 2011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2월 14일